

“문화예술 친밀감 높이고, 시민에게 더 가까이”

15-18일 광주예술의전당 재개관 기념 아트위크

시립예술단 잔디광장 야외무대·광주시향 연주회
유키 구라모토 피아노·데이브레이크 콘서트까지

다채롭고 풍성한 공연예술로 따뜻한 치유를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예술의전당(광주예당)이 오는 15-18일 4일간 재개관 기념 특별 기획 아트위크 행사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더 가까이 예술’을 주제로 하는 이번 행사는 광주예당 대·소극장을 비롯해 야외무대(잔디광장)에서 수준 높은 공연과 우수 콘텐츠 상영회를 만나볼 수 있는 자리다. 지역민과 문화예술의 친밀감을 높이고 시민이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예술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이 첫 무대 주인공으로 나서 대금 중주 ‘애가’와 해금 3중주 ‘기분 좋은 날’ 공연으로 서막을 연다. 이어 시립합창단이 ‘행복을 주는 사람’, ‘Oh Happy Day(오! 해피 데이)’ 등 무대로 남성 코르셋의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끝으로 시립합창단이 ‘부채춤’과 ‘판굿’을 선보이며 한국 무용의 아름다움과 신명나는 모듬북의 향연을 펼친다. 잔디광장 야외무대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

같은 날 싱그러운 초여름 밤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잔디광장 상영회가 펼쳐진다. 고화질, 고음질의 우수한 공연영상 ‘2022 윤보선 고택 쌀롱 콘서트’를 스크린에서 만날 수 있다. 서울 안국동 윤보선 전 대통령 고택에서 열린 서울예술의전당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쌀롱 콘서트 실황이다.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의 연주 영상으로 그날의 감동을 고스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



데이브레이크

란히 전한다. 이어 16일 오후 7시30분 대극장에서는 광주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비욘드(Beyond)’가 열린다. 야외 잔디 광장에서는 집 호킨스라는 소년이 겪는 모험의 여정을 짜릿하고 흥미롭게 풀어낸 연극 ‘보물섬’이 상연된다.

17일 오후 5시 대극장에서는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디어 하트(Dear Heart)’ 무대가 마련됐다. 공연 후 잔디광장에서는 클래식 음악 앙상블단 디토의 10주년 갈라콘서트 ‘디토 파라디소’가 스크린

로 찾아온다.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다니엘 정, 유치엔 첩, 대니 구, 문태국, 여운수, 아오 펑, 성민제 등 쟁쟁한 연주자들의 생생한 감동을 영상으로 느껴볼 수 있다.

아트위크 마지막 날인 18일 오후 4시 소극장에서는 데이브레이크 콘서트 ‘빛나는 사람’이 대미를 장식한다. 다양한 장르와 무드를 유연하게 넘나드는 데이브레이크는 이날 무대에서 ‘좋다’, ‘들었다 놔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 등 대표곡을 통해 관객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간다.

‘아트위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먼저, 15일 오후 6시30분 잔디광장 야외무대에서 시립예술단 무대가 펼쳐진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

스크린에 투영된 ‘우리’안의 또다른 시선

22-25일 제12회 광주독립영화제...장·단편 34편 선별

광주독립영화협회가 주최하는 제12회 광주독립영화제가 오는 22-25일 4일간 광주극장과 광주독립영화관에서 펼쳐진다. 이번 영화제는 ‘썸민디 : 500cc 영화 한 잔’을 슬로건으로 지역 출신 신예감독과 스텝이 참여한 재기발랄한 작품을 비롯해 국내 우수 장·단편영화 34편

을 선사한다. 개막작은 김태일·주로미 감독의 영화 ‘또 바람이 분다’. 이들의 ‘민중의 세계사’ 시리즈 네 번째 작품이다. 광주, 캄보디아, 보스니아, 팔레스타인, 세계 분쟁지역만 골라서 다닌 가족의 여정을 다룬 가족사이자 민중사로, 2022 서울독립영화

제 개막작이기도 하다. 폐막작으로는 심혜정 감독의 신작 ‘너를 줘다’가 상영된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CG V상, 한국경쟁 왓차가 주목한 장편을 수상했다. 특히 이번 영화제에서는 광주 출신 감독들의 신작과 더불어 시민들이 만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메이드 인 광주 단편 신작전’, 김조광수 감독의 영

화 ‘신입사원 : 더무비’가 상영되는 ‘장편 초청 2’도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광주 뷰폴리에서 즐기는 야외 상영 ‘한 여름밤의 로맨스 단편 초청 2’, 한 여름밤의 오색함을 더해줄 ‘핑크 호러 나이트 단편 초청 4’ 등 여름밤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영화제 기간에는 작품 상영 이후 관객과의 대화도 진행된다. 한편 제12회 광주독립영화제는 광주시, 영화진흥위원회가 후원하며 관람료는 무료다. /최명진 기자



2023 ACC 레지던시 참여작가 단체사진.

(ACC 제공)

‘듣기의 미래’ 프로젝트 ACC 레지던시 본격 활동

오는 11월 결과물 공개

도시의 소리풍경을 연구하고 창·제작 예술가와 연구자들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12일 “2023 ACC 레지던시 프로그램 ‘듣기의 미래’ 참여자 9명이 최근 모든 입주 준비를 마치고 지난달부터 작품 창작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ACC는 올해 입주 작가 지원 프로그램에 응모한 46개국 출신 340명 가운데 4개국 9명(개인 7명, 팀 2명)을 참여자로 확정, 선발했다.

기술연구, 시각미술, 연구기획, 소리 예술(Sound art), 매체예술(미디어아트), 다원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듣기의 미래’를 주제로 그동안 서구적으로 정의된 ‘듣기’

의 아시아적 의미를 되짚어보고 아시아 도시에서 떠오르는 의제들을 소리 풍경(Soundscape)으로 해석, 6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창작품으로 만들어내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ACC는 ACC소리예술연구소와 협업해 세계 유수의 소리풍경 전문가로 구성된 창작지원 프로그램을 참여자에게 총 4차례 제공한다.

첫 프로그램은 영국 옥스퍼드대학 과버버니 대학 교수들이 진행하는 ‘도시와 소리풍경’이다. 참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ACC 창·제작 기반시설과 전문 인력의 자문 등을 받아 개별 연구 과제를 고도화해 나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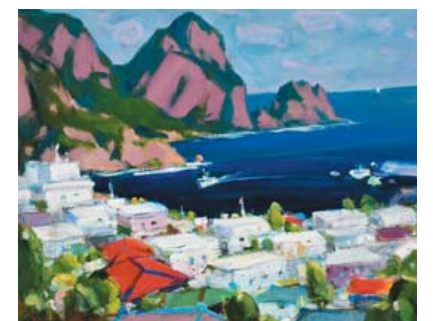
결과물은 오는 11월10일부터 개최되는 결과발표전에서 공개된다. 각 프로젝트와 연계한 시민 대상 프로그램을 관람객에게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남포미술관, 조성호 화백 기증 작품전

남포미술관은 오는 7월30일까지 본관 전시실에서 서양화가 조성호 화백 기증작품전 ‘자연의 산책’을 연다.

이번 전시는 평생에 걸친 화업(畫業)의 결과물인 소중한 작품을 조건 없이 기증한 조화백의 뜻을 기리고 그의 작업 세계를 조명하고자 마련됐다. 조 화백은 (사)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과 한국현대미술신품회 회장,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뉴욕 케이트갤러리, 롯데미술관 등 22회 개인전과 다수의 그룹전, 아트페어, 해외 초대전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한국 구상화단의 원로 화가다.

산(山)을 그리는 작가로 알려진 조 화백은 이번 전시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산하와 히말라야, 그리스 산토리니 등 세계 명소의 풍경들을 담은 작품 70



조성호작 ‘홍도’

점을 선보인다.

예술적 심의(心意)와 현대적인 조형의식으로 자연을 자유롭게 변용시키는 그의 작업은 대범하고 시원한 전개와 강렬한 색채 구성이 돋보인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과 미적 감수성, 그리고 그의 삶 속에 녹아든 원숙미가 어우러져 잔잔한 감흥을 선사한다. /최명진 기자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 때 “여보야”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에서 “여보야”를 다운로드 받고 당신과 평생을 함께 할 배우자를 찾아보세요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   